

베트남의 정치적 보수화와 경제개혁의 지속: 제12차 및 제13차 공산당대회 분석*

이 한 우**

요약

베트남은 2021년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쳐 제13차 공산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3차 당대회는 제12차 당대회에 이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조건하에 경제개혁을 지속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경제개혁을 지속하려고 한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여러 소유부문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문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는 공식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13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과정에서 특히 사유(민간) 경제부문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민간경제부문은 국유경제부문과 협력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부문을 계속하여 장려하면서, 외국인투자부문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국내 산업의 자주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였다.

공산당은 이념상 사회주의와 혁명도덕을 강조하는 ‘당 건설’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베트남 정치체제 전체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공산당 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NRF-2019S1A5C2A01080959).

제12차 당대회 관련 내용의 일부는 이한우·채수홍(2017), 제13차 당대회 관련 내용의 일부는 이한우(2021)에 게재되었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asia@sogang.ac.kr

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3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원보다 약간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와 정치국 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하였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연임 위원 비율은 이전보다 훨씬 높았다. 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공산당 전임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를 통하여 정치적 보수화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주제어: 베트남, 공산당대회, 사회주의, 보수주의, 개혁

I. 서론

베트남공산당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제13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당원 약 520만 명을 대표하여 1,587명이 참석하였다. 공산당은 5년 전 2016년 1월 20-28일 간 제12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원 약 450만 명을 대표하여 1,51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었다. 각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 발전전략을 논의하였고, 향후 5년간 공산당 및 국가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을 지도자들을 선임하였다. 당대회의 슬로건은 제13차에 “단결, 민주, 기강, 창조, 발전”(Đoàn kết - Dân chủ - Kỷ cương - Sáng tạo - Phát triển)이었는데, 제12차의 “단결, 민주, 기강, 도이머이”(Đoàn kết - Dân chủ - Kỷ cương - Đổi mới)와 유사하였다. 이를 보면,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가 상당히 정책적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DCSVN 2016, 10; DCSVN 2021a, 1).

베트남에서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당대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베트남의 향후 사회 변화의 방향

을 전망하는 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그간 베트남의 공산당대회에 대한 분석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이한우 2011; 石塚二葉·坂田正三 2017; Vuving 2017). 기존 연구의 연속선 상에서 이 연구는 최근 개최된 제13차 당대회를 제12차 당대회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선 두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발전 전략 및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정치·경제적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변화 방향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 등 지도부의 인 사상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국가 발전 정책의 방향

1. 현 단계 인식

베트남에서 당대회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개최되어 지난 5년간 경제·사회 발전 성과의 평가 및 향후 방향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10년마다 지난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전략의 평가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제13차 당대회는 <정치보고>, <제12차 대회 임기 당 건설 공작 및 당 조례 시행 총결 보고>, <2011-2020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전략 실행 총결 및 2021-2030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전략 구축 보고>, <2016-2020 5년간 경제사회 발전 임무 실행 결과 평가 및 2021-2025 5년간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임무> 등 보고서를 채택하였다.¹⁾ 이에 비

1) 제13차 당대회에 제출한 각 보고서 최종안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논문은 그 초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의 초안과 최종안 간에는 차이가 약간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해, 제12차 당대회는 <정치보고>, <2011-2015 5년간 경제사회 발전 임무 실행 결과 평가 및 2016-2020 5년간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임무>, <당 조례 시행 총결 보고> 등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들은 국가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 내용 중 국가 발전 노선 및 체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자. 먼저,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를 선포하면서부터 베트남의 현 사회발전단계를 계속하여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상정하고 있다(CPV 1987, 18). 베트남은 이후 현 체제를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고 한다(DCSVN 2020a, 31).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국유, 사유, 혼합소유, 외국인투자 등 다양한 소유부문으로 구성되는 혼합경제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²⁾ 이 시기 동안의 중점 과제는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제12차 당대회에서 응우옌푸쑹(Nguyễn Phú Trọng) 총비서(총서기)는 베트남이 당면한 네 가지 위기를 언급하고 이를 극복할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위기는,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위기, ‘평화적 [체제] 전환’(điểm biến hòa bình)의 위기, 당 간부와 당원들의 사상·정치·도덕·생활에서의 침체로 인한 ‘자기 [체제] 전환’(tự điểm biến) 및 ‘자기 [체제] 전환(轉化)’(tự chuyển hóa)의 위기, 관료주의·부패·낭비의 폐해 등이다(DCSVN 2016, 19).³⁾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에

2) 혼합경제체제의 명칭은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다성분경제”, 제7차에서는 “사회주의 지향 다성분 상품경제” 또는 “국가관리 하 시장경제에 따라 작동하는 다성분 상품경제”로 명명되었다. 이는 제8차에 이르러서 “사회주의 지향 국가관리 하 시장경제에 따라 작동하는 다성분 상품경제”로 정식화되었고, 2001년 제9차 당대회에서도 “사회주의 지향 국가관리 하 시장경제에 따라 작동하는 다성분 상품경제”, 약칭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명명되었다(이한우 2002, 127).

3) ‘평화적 [체제] 전환’(điểm biến hòa bình)은 외부 세력이 무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서도 다음의 위기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경제발전에서 뒤쳐져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는 것, 사회주의 지향 발전을 담보하는데 올바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부패·낭비·관료주의 및 정치사상·도덕·생활의 쇠퇴, ‘자기 전환, 자기 전화’ 등이다. 당은 이의 극복과 함께 독립·주권·영토보전, 평화와 안정된 환경 유지, 기후변화예의 적응 등이 긴급하다고 하였다(DCSVN 2020a, 22-23).

특히,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에서 기강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근래 공산당 정돈작업과 관련되어 있다. 공산당은 당 내부에서 일부 당원들의 사회주의 의식과 도덕성 약화로 당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자기 [체제] 전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계하며 사회주의 의식 강화를 강조하였다(DCSVN 2016, 68; DCSVN 2020a, 6-8). 이에 따라 공산당 건설 사업의 중점은 개인주의, 기회주의, 실용주의(chủ nghĩa thực dụng), 집단이익(lợi ích nhóm) 등에 대하여 사회주의 혁명 도덕의 질을 높이고 단련하는 데 있다고 한다(DCSVN 2020a, 8).⁴⁾

2. 정치체제의 지속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에서도 예전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호찌민사상을 견지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운용하여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보위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DCSVN 2016, 69; DCSVN 2020a, 23). 더불어 외부 세력이 비무력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국의 ‘和平演變’ 개념의 베트남 버전으로 1990년대부터 언급되어 왔다. ‘자기 [체제] 전환’(tự diễn biến)은 체제 내부적 침식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11년 제11차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되었다(DCSVN 2011, 170).

4) 실용주의(chủ nghĩa thực dụng)는 베트남어를 직역하면 실용주의이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실리주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베트남에서 집단이익(lợi ích nhóm)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뜻하여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이익을 가지는 집단은 ‘이익집단’(nhóm lợi ích)이라고 부정적으로 불린다.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을 도모하는 ‘평화적 [체제] 전환’ 시도를 타파하고, 일부 당원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약화와 혁명 도덕을 상실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적으로 침식시키는 ‘자기 [체제]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산당은 1990년대 초부터 ‘평화적 전환’의 위기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는데, 2011년 제11기부터 ‘자기 전환’ 및 ‘자기 전화’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 내 사회주의 사상의 쇠퇴에 대해 경고하며 체제 결속을 통해 내부적 침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은 관료주의와 부패가 체제 약화의 중요한 요인이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우옌푸쑹 총비서는 제13차 당대회에서도 공산당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부패 척결을 쉬지 않고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산당은 지난 35년간 ‘도이머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얻은 교훈 가운데 “인민이 근본”(dân là gốc)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였다(DCSVN 2016, 69; DCSVN 2020a, 17). 인민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12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되었고 이어 제13차 당대회에서도 언급되었다. 공산당은 정치부문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형식들을 체계화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DCSVN 2016, 166, 169; DCSVN 2020a, 50). 정치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체제 쇄신의 임무는 공산당에 의해 영도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DCSVN 2016, 175; DCSVN 2020a, 50-52). 그러나 공식적 주장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부문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논조를 답습하고 있어, 공산당이 정치체제의 본질적 변동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화 수준을 좀 더 높이도록 도모할 것임을 나타내준다.

3. 경제체제의 지속과 변화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현 체제를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하고 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는 여러 소유형태와 경제부문이 공존하는 경제이다. 공식적으로는 각 경제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이 모두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활동하고,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경쟁하여야 한다고 한다(DCSVN 2016, 105; DCSVN 2020a, 31-32).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국제경제 편입도 글로벌 시장의 원칙과 기준에 적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CSVN 2016, 98).

현 체제에서는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이고, 사유(민간)경제부문이 점점 더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부문이며, 외국인투자부문이 발전을 자극하는 중요한 부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DCSVN 2016, 103; DCSVN 2020a, 31-32). 베트남의 GDP 중 경제부문별 점유 비중을 보면, 국유경제부문은 2005년 37.6%, 2010년 33.6%, 2016년 3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국유경제부문, 즉 국내 민간경제부문은 2005년 47.3%, 2010년 49.2%, 2016년 47.3%로 증감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부문은 2005년 15.2%, 2010년 17.3%, 2016년 2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Vietnamnet 2018/07/26).

여기에서 공산당과 정부는 국유경제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높이기보다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배치하고 구조 조정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을 담당하게 하려고 한다.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에서 국내 민간경제의 발전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전보다 더 강조하였다.⁵⁾ 특히, 제조·가공업, 고도기술산업, IT 분야 등에서 민

간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DCSVN 2020b, 43). 동시에 민간경제부문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업집단을 육성하여,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협력하고 연계하도록 장려된다. 베트남 경제학자들도 민간기업 및 기업집단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Vietnamnet 2021/02/13).

외국인투자부문은 자본, 기술, 현대적 관리방식, 수출시장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된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계속하여 장려하지만, 낙후한 기술을 채용한 산업이나 환경오염 산업을 금지하는 등 제한을 두고자 한다. 더불어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부문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DCSVN 2020b, 42-43). 또한 베트남은 제12차 당대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지화(內地化)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였고(DCSVN 2016, 252), 제13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의 자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DCSVN 2020b, 42). 이것은 그간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부문의 비중은 2015년 70.6%에서 2019년 68.8%로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대체로 70%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DCSVN 2020b, 25, 각주 55). 베트남은 성장 모델을 투자와 수출 위주로부터 투자, 수출 및 국내 시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한다(DCSVN 2016, 87; DCSVN 2020b, 41). 베트남은 이렇게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비중을

5)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 이전 2017년 6월에 제12기 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의 중요 동력이 되도록 민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 연구자는 공산당의 민간경제 육성정책을 두고 “체제와 공산당의 공생관계”라고 평가하였다(BBC tiếng Việt 2021/02/02).

증대시키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국가 발전 목표와 전략

베트남은 경제적 뒤처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모형의 지속적 쇄신과 경제구조조정, 공업화·현대화의 강력한 추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제12차 당대회에서 경제구조조정으로서 공공투자의 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악성 부채 문제 해결과 공공 부채의 안정적 담보, 기업집단 및 총공사(소형 기업집단)를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농산물 가치 증대 및 신농촌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DCSVN 2016, 23, 88-89).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의 한 방식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단선적이지 아니라 순환적이 되도록 전환하여 생산에서 낭비를 줄이고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⁶⁾ 이외에도 공산당은 환경 보존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산업화에 따르는 오염의 확산,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극심한 홍수 피해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필요에서 제시되었다.

베트남은 기본 이념상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라는 현 시기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발전모형의 전환, 경제체제 구조조정 등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발전모형의 전환은 양적 성장 중심으로부터 양적·질적 성장의 결합을 목표로 하였다.

지도자들은 제13차 당대회가 베트남의 발전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대회라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베트남이 지난 35년간 개혁정책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효과

6) 베트남경제연구소장과의 교신, 2021년 1월 28일.

적으로 통제하여 대부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중에도 2020년 GDP 성장률 2.91% 성과를 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베트남은 오늘날 처럼 국가의 사업, 잠재력, 위상, 위신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자평하였다(DCSVN 2020a, 20). 베트남은 향후 5년간 GDP 성장률 목표를 연간 6.5-7%로 세우고, 1인당 GDP를 2020년 미화 2,750달러로부터 2025년에 미화 4,700-5,000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DCSVN 2020b, 37). 공업부문에서는 제조·가공업 비중을 2020년 현재 GDP의 16.6%로부터 2025년에 25% 이상,⁷⁾ 디지털 경제 비중을 2025년에 GDP의 약 20%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DCSVN 2020b, 8, 37).

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2011-2020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전략 실행 총결 및 2021-2030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전략 구축 보고>에서 장기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국가 발전 목표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미화 5,000달러의 중하위 소득수준을 넘은 (현대 지향 공업을 갖춘) 개발도상국, 2030년까지 1인당 GDP 미화 7,500달러의 중상위 소득수준의 (현대적 공업을 갖춘) 개발도상국, 2045년까지 고소득 발전국, 즉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1996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정한 공업화 목표, 즉 2020년까지 현대적 공업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실천해왔으나, 제12차 당대회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공업화 목표는 일차적으로 2030년에 도달되고 2045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

7) 베트남은 제12차 당대회에서 전체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을 2015년 18%로부터 2020년 25%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DCSVN 2016, 252, 285), 그 비중은 2020년에 16.6%로 감소하였다.

5. 대외관계

대외관계에서 베트남은 독립, 자주, 평화, 협력, 발전을 기본노선으로 하여, 대외관계를 다변화·다양화하고, 국제사회에 주동적(主動的)이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한다고 제시하였다(DCSVN 2016, 153-154; DCSVN 2021a, 45-46). 이 대외관계의 기본노선은 제11차 당대회부터 제13차 당대회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군사 분야 참여의 기반이 된다.

특히 제13차 당대회에서는 베트남이 아세안, 유엔 및 아시아-태평양 각 영역에서 중책을 잘 실행하여야 한다고 부가하였다. 더불어 외교와 국방, 안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 등을 빈틈없이 결합할 것을 목표로 하였고, 여기에 ‘동해’(남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항해 및 항공 자유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분쟁은 국제법과 1982년 유엔 해양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DCSVN 2021b, 62). 이는 제12차 당대회에서 분쟁은 국제법과 지역의 행동원칙에 기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DCSVN 2016, 314).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 2020-21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공세 수준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Ⅲ. 공산당 지도부 구성의 특징

1. 당대회 참석 대표자 구성

제13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구성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신임 대표자 비율은 종래 약 86%였는데, 제13차 당대회에서는 1% 포인트 증가한 87%였다. 여성 대표자 비율은 제11차 당대회에서 11%였는데 제13차 당대회에서 14%로 증가하였다. 소수종족 대표자 비율은 제11차 12.1%, 제12차 11.5%, 제13차 11.0%로 계속 감소하였다. 이를 보면, 당대회에 참석하는 대표들의 구성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공산당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사전에 준비한 방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1> 당대회별 대표자 구성

당대회	당원수	대표자수				여성 대표자수 (비율)	소수종족 대표자수 (비율)
			신임 (비율)	현임 (비율)	지정		
제11차	360만	1,377	1,188 (86.3%)	178 (12.9%)	11	150 (10.9%)	167 (12.1%)
제12차	450만	1,510	1,300 (86.1%)	197 (13.0%)	13	194 (12.8%)	174 (11.5%)
제13차	520만	1,587	1,381 (87.0%)	191 (12.0%)	15	222 (14.0%)	175 (11.0%)

출처: Thông tấn xã Việt Nam.

2.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제12차 및 제13차 공산당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200명 선임 하였다(<그림 1> 참조). 이 가운데 180명은 표결권을 가진 정위원이고,

20명은 표결권을 갖지 않는 후보(보결)위원이다. 제11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정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이었는데, 제12기에 그 수를 조정하였다. 제12기에 신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제11기보다 더 많이 선임되어, 정위원 중 신임 위원 비율은 제11기 51.4%로부터 54.4%로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특히 지방 출신 신임 위원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러나, 지방 출신 위원 전체의 수는 제11기 74명에서 제12기 68명으로 6명이나 감소하였다. 제12기에 지방 출신 위원이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 출신 위원 중 신임 위원 비율이 86.8%로 전 회기 75.7%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제12기 정위원 180명의 부문별 분포를 제11기와 비교해 보면, 정위원이 5명 증가하였는데, 공산당 전임자가 5명 증가하여, 증가분을 모두 당 전임자들로 채운 셈이 되었다. 신임 위원 중 지방 출신 위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당 전임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지방으로부터 인재를 발탁하여 성과에 따라 당 전

〈그림 1〉 베트남공산당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출처: 한국일보

임자로 선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는 기존의 권력 관계를 타파하고 당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즉, 전 회기 5년 동안 지방에서의 권력 축적을 타파하고, 당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까지 잘 파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3차 당대회에서 대표자들은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후보자 203명, 후보(보결)위원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정위원 180명, 후보위원 20명, 총 200명을 선출하였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180명 중 연임 위원 수는 103명, 신임 위원 수는 77명이었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구성의 특징은 그 이전보다 연임 위원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임 위원 비율은 제11기 49%, 제12기 46%

<표 2> 제11, 12, 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의 부문별 구성

부문		제11기 (2011년~)			제12기 (2016년~)			제13기 (2021년~)		
		연임	신임	계	연임	신임	계	연임	신임	계
중앙	당	21	5	26	24	7	31	21	8	29
	정부 (법원 포함) (공안)	24	13	37 (6)	25	13	38 (5)	27	11	38 (6)
	국회	9	1	10	9	3	12	7	4	11
	사회단체	4	2	6	3	2	5	3	2	5
	학계	0	3	3	3	2	5	1	3	4
	소계	58	24	82	64	27	91	59	28	87
지방		18	56	74	9	59	68	32	38	70
군부		9	10	19	9	12	21	12	11	23
합계		85	90	175	82	98	180	103	77	180
구성비율 (%)		48.6	51.4		45.6	54.4		57.2	42.8	

주: * 당 중앙 출신은 당 중앙 직무 전임자를 뜻하며, 중앙 정부, 국회, 사회단체 및 기업, 학계는 각 부문에서 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정부 중 국방부 소속 인사는 군부에 포함시켰고, 공안부문 및 국영기업 담당자는 정부에 포함시켰다.
출처: VnExpress, 2011/01/18; Tuổi Trẻ, 2016/01/26; Lê Hiệp & Anh Vũ 2021을 기초로 작성.

로부터 제13기에 57%로 되었다(<표 2> 참조).

한편 후보위원으로부터 정위원으로의 승격도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12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 20명 중 제13기 정위원으로 선출된 인원은 16명, 후보위원으로 유지한 인원은 1명, 본 직위를 상실한 인원은 3명이었다. 제11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 25명 중 제12기에 정위원으로 된 인원은 18명, 계속 후보위원으로 유지한 인원은 3명, 본 직위를 상실한 인원은 4명이었다. 제11기 후보위원 중 제12기에 그 직위를 상실한 4명 중 제13기에 정위원으로 된 인원은 2명이었다. 결국 제11기 후보위원 25명 중 제12, 13기 어느 기에서도 직위를 상실한 인원은 2명이었다. 이를 보면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들은 대부분 차기 또는 차차기까지 정위원으로 선임되며, 그 직위를 상실하는 인원의 비율은 10% 이하다.

공산당의 중앙 수준에서 제13기 부문별 구성비율은 제12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참조). 제12, 13기 모두 당 및 정부 이외 부문, 즉 국회 10-12명, 사회단체 5-6명, 학계 3-5명으로 전체 정위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공안(公安)부문도 5-6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군부는 제11기 19명으로부터 2명씩 증가하여 제13기에 23명이 되어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다.

제12기 및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에 젊은 세대가 충원되었는데, 제12기 신입 위원 비율은 54.4%였고, 제13기 신입 위원 비율은 그보다 현격히 낮은 42.8%였다. 후보위원이 차기 정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이를 재선임에 포함한다면, 재선임 위원 수와 비율은 제12기에 100명 55.6%, 제13기에 119명 66.0%로 높아지며, 그만큼 신입 위원 비율은 제12기 44.4%, 제13기 34.0%로 더 낮아진다. 제12기 신입 정위원 중 1965년 이전 출생한 위원은 69명이었고, 1965년 및 그 이후 출생한 위원은 29명이었다. 재임 위원 중 1970년대생 위원은 보반트엉(Võ Văn Thưởng)이 유일하였다.⁸⁾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신입 정위원 77명은

1960년대생 35명, 1970년대생 42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전반에 출생했다. 두 기를 비교하면, 제12기에 1965년 이후 출생 위원보다 1965년 이전 출생 위원이 월등히 많았던 반면, 제13기에 1960년대 출생 위원보다는 1970년대 출생 위원이 많았다. 즉 제12기보다 제13기에 전체적으로 신임 위원은 적었으나, 신임 위원들 중에는 젊은 위원들이 더 많이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충원되었다. 그러나 제13기에 신임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수의 신임 위원들이 젊은 세대에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의 연소화는 많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13기 정치국 위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그 평균 연령은 제8기 62.8세였다가, 제9기부터 제12기까지 차례로 60.3세, 59.8세, 60.8세, 59.2세였고, 제13기에 61.7세로 되었다.

3. 정치국 구성

제12차 당대회에서 제11기 정치국 위원 16명 중 7명이 재선임되었고, 12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신임 위원이 비교적 많아 정치국 위원 구성의 변동폭이 컸다(<표 3> 참조).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제12기 정치국 위원 19명 중 8명이 재선임되었다. 정치국 위원의 재선임 비율은 제11기 56%, 제12기 37%, 제13기 44%였으며, 기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당대회 기간 중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정치국, 비서국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였다(<표 3> 참조). BBC가 종합한 정보에 따르면, 제13기 정치국 위원 후보자는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8명은 제12기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제13기 위원으로 재

8) 보반트영은 2006년에 제10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 2011년에 제11기 정위원이 되었다. 이후 그는 제12, 13기에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및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그는 전임 수상 보반끼엣(Võ Văn Kiệt)의 자녀로 알려져 있다(정재호 2021).

선임되었고, 7명은 제12기 비서국 위원이었는데 제13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3명이 제12기 정치국이나 비서국 위원이 아니었으면서 제13기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다. 후보자 26명 중 5명은 제13기 비서국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3명은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다(BBC tiếng Việt, 2021/02/03).⁹⁾ 비서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5명과 함께 추후 정치국 위원이면서 비서국 위원을 겸직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제13기 정치국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제12기 59.2세에 비해 높아졌다. 연령 한도 규정을 벗어나 ‘특별 승인’을 받은 인사는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전체에서 10명으로, 제12기 5명보다 많았다(BBC tiếng Việt, 2021/02/03; BBC tiếng Việt, 2016/01/26). 그 가운데 정치국 위원은 제12기에 응우옌푸쑹(71세) 한 명, 제13기에 응우옌푸쑹(76세)과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67세) 두 명이었다. 응우옌푸쑹은 총비서 선임 시 연령 한도와 연속 재임까지만 가능한 규정을 벗어나 두 가지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공산당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초임의 경우 55세, 재임 시 60세, 정치국 위원은 초임의 경우 60세, 재임 시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제12기 정치국 위원 중 제13기에 재선임된 인사는 응우옌푸쑹, 응우옌쑤언푹, 팜민찐, 브엉딘후에, 쑤엥티마이, 보반트엥, 팜빈민, 또럼이며, 제12기 비서국 위원 중 제13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는 응우옌반넨, 판딘짜, 찌엡뚜, 응우옌호아빈, 찌타인민, 응우옌쑤언탕, 르엥끄엥이다. 제12기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이 아니었으면서 새롭게 제13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는 판반장, 찌뚜언아인, 딘띠엔중이며, 비서국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는 레민흥(Lê Minh Hưng) 당 중앙사무처장, 응우옌중응이어(Nguyễn Trọng Nghĩa) 군 정치총국 부주임, 도반찌엔(Đỗ Văn Chiến) 민족위원회 주임, 부이타민호아이(Bùi Thị Minh Hoài) 당 중앙감찰위원회 상임부주석, 레민카이(Lê Minh Khái) 정부 감사원장이다. 제13기 후보자 26명 가운데 정치국이나 비서국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인사는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노동원회사 회부장관, 부이타인선(Bùi Thanh Sơn) 외교부 상임차관, 보티아인쑤언(Võ Thị Ánh Xuân) 안장(An Giang)성 당 위원회 비서이다(BBC tiếng Việt, 2021/02/03).

<표 3> 제11, 12, 13기 정치국 위원

제11기 (2011. 1 ~)	제12기 (2016. 1 ~)	제13기 (2021. 2 ~)
★Nguyễn Phú Trọng (국회주석, 66) Trương Tấn Sang (당 비서국 상임비서, 62) ▽ Phùng Quang Thanh (국방부 장관, 62) ▽ Nguyễn Tấn Dũng (수상, 62) Nguyễn Sinh Hùng (하노이시 당위 비서, 65) ▽ Lê Hồng Anh (공안부 장관, 62) ▽ Lê Thanh Hải (호찌민시 당위 비서, 61) ▽ Tô Huy Rứa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 64) ▽ Phạm Quang Nghị (하노이시 당위 비서, 62) ▽ ▲Trần Đại Quang (공안부 차관, 55) ▲Tông Thị Phóng (국회 부주석, 57) ▲Ngô Văn Dụ (당 중앙사무처 주임, 64) ▽ ▲Đinh Thế Huỳnh (<년잔> 편집장, 58) ▲Nguyễn Xuân Phúc (정부 사무처 주임, 57) ▲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 부주석, 59) ▲Nguyễn Thiện Nhân (부수상, 59)	★Nguyễn Phú Trọng (총비서, 71) Đinh Thế Huynh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 63) ▽ Trần Đại Quang (공안부 장관, 62) ▽ 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 부주석, 61) ▽ ▲Ngô Xuân Lịch (군 정치총국 주임, 61) ▽ ▲Tô Lâm (공안부 차관, 58) Nguyễn Xuân Phúc (부수상, 62) Nguyễn Thiện Nhân (베트남조국전선 주석, 64) ▽ ▲Phạm Minh Chính (당 중앙조직위원회부위원장, 57) Tông Thị Phóng (국회 부주석, 62) ▽ ▲Vương Đình Huệ (당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 58) ▲Trần Quốc Vương (당 중앙사무처장, 62) ▽ ▲Phạm Bình Minh (부수상, 외교부장관, 56) ▲Trương Thị Mai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주임, 58) ▲Trương Hòa Bình (최고인민법원장, 60) ▽ ▲Nguyễn Văn Bình (국가은행 총독, 54) ▽ ▲Võ Văn Thương (호찌민시 당위 상무부비서, 45) ▲Đinh La Thăng (교통운수부 장관, 55) ▽ ▲Hoàng Trung Hải (부수상, 56) ▽	★Nguyễn Phú Trọng (총비서, 76) Nguyễn Xuân Phúc (수상, 67) Phạm Minh Chính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62) Vương Đình Huệ (하노이시 당위 비서, 63) Trương Thị Mai (당 중앙동원위원회 위원장, 63) Võ Văn Thương (당 중앙선전위원회 위원장, 50) Phạm Bình Minh (부수상, 외교부장관, 61) ▲Nguyễn Văn Nèn (호찌민시 당위 비서, 63) Tô Lâm (공안부 장관, 63) ▲Phan Đình Trạc (당 중앙내정위원회 위원장, 62) ▲Trần Cẩm Tú (당 중앙감찰위원회 주임, 59) ▲Phan Văn Giang (국방부 차관, 군 총참모장, 60) ▲Nguyễn Hòa Bình (최고인민법원장, 62) ▲Trần Thanh Mẫn (베트남조국전선 주석, 58) ▲Nguyễn Xuân Thắng (호찌민국가정치학원 감독, 63) ▲Lương Cường (군 정치총국 주임, 63) ▲Trần Tuấn Anh (상공부 장관, 56) ▲Đinh Tiến Dũng (재정부 장관, 59)

범례: ★총비서, ▲신임, ▽차기 퇴임

주: 1) 괄호 안의 내용은 선임 당시 직책과 연령임.

- 제11차 공산당대회 시 정치국 위원이 14명 선임되었으나, 이후 2013년 5월 중앙집행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응우옌티김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응우옌티엔넨(Nguyễn Thiện Nhân) 2명이 추가 선임되었음.
- 제12기 정치국 위원 순위는 공산당대회 직후 공산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순위이며, 당시 서열이라고 판단함.
- 제12기 정치국 위원 중 쩌다이퐁(Trần Đại Quang)은 2018년 9월 사망하였고, 딘라탕(Đinh La Thăng)은 2017년 5월 정치국 위원 직위를 상실함.
- 제13기 정치국 위원 명단의 첫 공보는 최고위 4명을 서열순으로 배열하고 제5위부터 이름의 abc순으로 배열하였음. 본 표에서 위원들 순서는 보반트 영이 폐회식에서 발표한 순서이며, 재차 공보에서 동일하게 배열되어 정치국 위원 서열이라고 판단함.

출처: <http://dangcongsan.vn/tu-lieu-van-kien/ban-chap-hanh-trung-uong/bo-chinh-tri.html>; Thanh Niên 2016/01/29; DCSVN 2021

각 당대회에서 선임된 정치국 위원들의 부문별 분포를 보면 공산당이 기별로 강화하는 부문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표 4> 참조). 단지, 정치국 위원들이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문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이 모두 공산당 고위 당원이고 국회의원이며 주된 활동부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쩡엠타이(Truong Thi Mai)는 제12차 당대회 시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주임일 때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후 당 중앙동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정치국 위원들이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당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면, 개인별 특성이 아니라 부문별 비중의 변화가 당대회에서 강화되는 부문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4> 제11, 12, 13기 정치국 위원의 부문별 구성

부문	제11기	제12기	제13기
중앙 당	4	5	7
지방 당	2	1	2
정부	4	6	5
국회	3	3	0
공안(公安)	2	2	1
군(軍)	1	1	2
사회단체	0	1	1
합계	16	19	18

출처: <표 3>의 내용으로 작성

제13기 정치국 위원 구성을 보면, 공산당이 당 전임자의 비중을 늘려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였다.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 선임 당시 현직을 기준으로, 중앙 당 전임자의 수는 제11기 4명, 제12기 5명으로부터 제13기에 7명으로 증가하였다(<표 4> 참조). 지방 당에서는 하노이와 호찌민시 당 위원회 비서가 통상적으로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되어 왔다.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있는 정치국 위원은 제12기 6명으로부터 제13기에 5명으로 한 명 적어졌다. 제13기에 특기할 사항은 제11, 12기에서 국회의 주요 직위에 있는 위원이 3명이었던 데 반해 제13기에 한 명도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 ‘무장 역량’이라고 일컫는 공안(公

安)과 군(軍) 출신은 기별로 3명이었다. 또 주목할 점은 제12기부터 계속 사회부문의 대표인 베트남조국전선 주석을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정치국 구성상의 변화를 보면, 제13기에 당 전임자들의 정치국 지배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당 정돈 작업과 사회주의 체제 보수의 기초와 상통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4. 총비서 선출과정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 준비과정과 당대회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공산당 총비서 선출 문제였다. 제12기에는 당초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응우옌떤중(Nguyễn Tấn Dũng) 수상(총리)이 이에 도전해 양자 간 경합 양상을 보였다. 공산당은 제11기 중앙집행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14차 회의에서 제12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포함되었으나, 그와 경합하던 응우옌떤중 수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응우옌떤중은 당대회에서 총비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사임하였고, 결국 응우옌푸쫑이 총비서로 당선되었다(石塚二葉·坂田正三 2017). 제12차 당대회에서의 총비서 선출과정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제12기 동안 응우옌푸쫑과 응우옌떤중 간 권력 경쟁이 치열하였기 때문이다.

제13기에는 정치국 위원 중 응우옌푸쫑이 서열 1위를 차지하여 3회 연속 총비서로 선임되었다. 제13차 당대회 직전 1월 16-17일 간 열린 제12기 중앙집행위원회 15차 회의 이전까지, 쩌꾸옥브엉(Trần Quốc Vương) 당 상임비서가 차기 총비서로 가장 유력하였다. 15차 회의는 당대회에 제출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였다. 쩌꾸옥브엉은 부패척결운동을 추진하면서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해 차기 정치국 위원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응우옌푸쑹이 직접 총비서 후보자로 나섰다. 제 12차 당대회에서도 응우옌푸쑹이 지지하는 팜꽁응이(Phạm Quang Nghi) 하노이시 당 위원회 비서, 쩌다이꽁(Trần Đại Quang) 공안부장관, 딘테후인(Đinh Thế Huynh)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응우옌푸쑹 본인이 총비서 재선임에 도전했었다고 한다(Hayton 2020, 237).

제13기에 정치국 위원 서열 2, 3, 4위는 차례로 응우옌쑤언푹 수상, 팜민쩰(Phạm Minh Chính)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하노이시 당 위원회 비서가 차지하였다. 이들은 2021년 5월 23일 국회의원 선거 후 열리는 국회 첫 회의에서 국가주석, 수상, 국회주석(국회의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보반트영 당 중앙선전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회 중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고위 지도자 4인과 함께 단상에 앉았고, 당대회 폐회식에서 제13기 총비서,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 등 고위 인사 선출 결과를 발표하여 상임비서로 유력함을 나타냈다. 당대회 이후 그는 비서국 상임비서로 임명되었다.

제13기에 응우옌푸쑹이 총비서에 세 번째 선임되면서, 그가 그간 추진해온 부패 척결과 당 정돈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당의 보수화를 강화하리라고 예상된다.

5. 지역별 구성의 특징: 북부의 우위

제13기 공산당과 국가 최고위 지도자들 4인의 출신지 분포를 보면, 제12기에 이어 북부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3기 최고위 지도자 중 응우옌푸쑹은 하노이(Hà Nội, 북부), 응우옌쑤언푹

은 광남(Quảng Nam, 중부), 팜민찐은 타인호아(Thanh Hóa, 북부), 브영딘후에는 응에안(Nghê An, 북부) 출신이다. 제13기 최고위 지도자에 남부 출신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 균형이 깨졌다. 제12기에 공산당과 국가 최고위 지도자 4인의 출신지는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하노이, 찐다이짱 국가주석이 닌빈(Ninh Bình), 응우옌티킴응언 국회주석(국회의장)이 벤째(Bến Tre), 응우옌쑤언푹 수상이 광남으로, 북부 2명, 중부 1명, 남부 1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이를 북·남부로 구분하면, 제11기처럼 북부 2명, 남부 2명이 된다.¹⁰⁾

정치국 위원 전체의 출신지를 보면, 제12기에 14명이 북부, 5명이 남부로, 정치국 내 북부 출신자의 우위가 현저하였고,¹¹⁾ 제13기에도 12명이 북부, 6명이 남부로 북부 우위가 지속되었다(<표 5> 참조).¹²⁾ 정치국 위원의 출신지별 비율은 통일 직후부터 1986년까지 북부 우위를 나타냈다가, 제8기(1996-2000년)를 예외로 하여 1991-2010년 간 남북 균형을 보였고, 2011년 제11기부터 다시 북부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남부 출신 위원 대비 북부 출신 위원의 비율은 제11기에 거의 두 배였다가 제12기에 거의 세 배로 되었고, 제13기에 두 배로 되었다. 공산당 내 북부 우위 현상은 통일 직후에 현저하다가 이후 완화되었지만 2011년부터 다시 지속되고 있다. 1991년경 전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3%였는데, 그 비율은 북부에서 9% 남부에서 1%였다(Hiebert 1993, 193).

10) 제11기 최고위 지도자들의 출신지역은,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하노이(Hà Nội, 북부), 쑤영면상 국가주석이 롱안(Long An, 남부), 응우옌떤중 수상이 까마우(Cà Mau, 남부), 응우옌신흥 국회주석이 응에안(Nghê An, 북부)이었다.

11) 제12기 정치국 위원들의 출신지는 <표 3> 명단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하노이, 남딘(Nam Định), 닌빈(Ninh Bình), 벤째(Bến Tre), 하남(Hà Nam), 흥옌(Hung Yên), 광남(Quảng Nam), 째빈(Trà Vinh), 타인호아(Thanh Hóa), 선라(Son La), 응에안, 타이빈(Thái Bình), 남딘, 광빈(Quảng Bình), 롱안(Long An), 푸토(Phú Thọ), 빈롱(Vĩnh Long), 남딘, 타이빈. (남부지역에 밑줄을 그어 표시함.)

12) 제13기 정치국 위원들의 출신지는 <표 3> 명단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하노이, 광남, 타인호아, 응에안, 광빈, 빈롱, 남딘, 락이닌(Tây Ninh), 흥옌, 응에안, 하띤(Hà Tĩnh), 남딘, 광응아이(Quảng Ngãi), 허우장(Hầu Giang), 응에안, 푸토, 광응아이, 닌빈. (남부지역에 밑줄을 그어 표시함.)

2011년에는 전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4%였고, 그 비율은 북부에서 5.6% 남부에서 2.3%였다(Thayer 2011). 인구 대비 당원 비율에 있어 북부에 비해 남부가 여전히 절반 정도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5〉 정치국 위원의 출신 지역별 인원수

회기 지역	제4기 (1976.12~)	제5기 (1982.3~)	제6기 (1986.12~)	제7기 (1991.6~)	제8기 (1996.7~)	제9기 (2001.4~)	제10기 (2006.4~)	제11기 (2011.1~)	제12기 (2016.1~)	제13기 (2021.2~)
북부	11	10	9	7	13	6	7	9	14	12
남부	6	5	5	6	6	9	7	5	5	6

주: 1) 제6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선출된 응우옌반린(Nguyễn Văn Linh)은 북부 흥옌(Hung Yên) 출신이나, 주로 남부에서 혁명운동에 참여하여 흔히 남부 인사로 인식되기에 남부 출신에 포함시켰음.

2) 정치국 위원 수는 회기 중 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산당대회에서 선출할 당시 위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6. 여성과 소수종족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국에서 여성과 소수종족은 상대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00명 중 여성 위원 수는 제12기 20명, 제13기 19명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여성 정치국 위원은 제11기 2명, 제12기 3명에서 제13기 1명으로 감소하였다. 쯔엥티마이 당 중앙동원위원회 위원장이 여성 지도자로서 제13기 최고위 4인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정치국 위원직에 머물렀다.

IV. 결론

제13차 당대회는 제12차 당대회에 이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조건하에 경제개혁을 지속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제13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책을 제12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책과 비교해 본 결과, 이 두 당대회가 연속선상에서 부분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현 발전단계를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규정하고, 현 체제를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다양한 소유부문이 존재하며, 시장법칙에 따라 경제가 규율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정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호찌민사상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공산당 1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지도자들은 이념과 제도로서 사회주의를 보위한다고 공언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의 쇠퇴와 전환을 도모하는 국내외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산당은 외부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평화적 전환’, 내부로부터 체제를 침식하려는 도전을 ‘자기 전환’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산당은 최근에는 특히 체제 내부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뢰 저하와 행동으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침식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체제 내 인사들 중 사회주의 체제 존립의 당위성에 회의감을 갖는 인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공산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이 체제안보(regime security)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사회주의 이념의 강화와 공산당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 공산당은 이념상 사회주의와 혁명도덕을 강조하는 ‘당 건설’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제12차 당대회 이후 응우옌푸쫑 총비서를 선두로 한 부패척결운동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배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치체제 전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재하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공산당 내 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3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였다. 이는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사전에 준비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측면도 있으나, 위원 정수보다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였다는 점은 공산당 내 민주화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쩌꾸옥브엉 당 상임비서가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지지를 얻지 못하여 결국 제13기 총비서 후보자로 나서지 못한 것도 공산당 내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의 한 면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재임까지 가능한 규정을 벗어나 세 번 연속 총비서로 선임된 것은 베트남 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베트남 정치에 인치적 요소가 잔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산당은 제13기에 인사상 안정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180명 중 연임 위원 비율은 57%로 이전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5년 전 제12기에 신임 위원이 연임 위원보다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연령 초과 위원들에 대한 ‘특별 승인’이 이루어졌고, 정치국 위원 평균 연령이 61.7세로 이전의 60세보다 더 높아졌다. 제13기 정치국 위원들은 연임 위원 8명, 신임 위원 10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공산당 전임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당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응우옌푸쫑이 ‘특별 승인’을 통하여 연속 세 번째 총비서로 선임된 것은 개인적 권력 강화와 함께 사회주의 보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트남이 제12차 및 제13차 당대회를 통하여 이념적 보수화와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공산당이 지배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5년 간 ‘도이머이’의 성과는

자못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2020년에 GDP 성장률 2.91% 성과를 나타냈기에,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는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하에서 여러 소유부문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문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13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히 사유(민간)경제부문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민간경제 부문은 국유경제부문과 협력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계속하여 장려하지만, 낙후한 기술을 채용한 산업이나 환경오염 산업을 금지하는 등 제한을 두고자 한다. 더불어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부문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국내 산업의 자주성을 높여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였다. 제13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발전 방향을 보면,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보수화와 함께 그간 추진해온 경제개혁 기초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 고 일: 2021년 02월 1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2월 20일
계 재 확 정 일: 2021년 02월 23일

참고문헌

김태연. 2021. “[2021 베트남 전당대회] 당 대회 바라본 세 가지 핵심키워드 ‘3연임, 70년대생, 중부지방.’” 『아주경제』 2월 3일.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3111949570>(검색일: 2021. 2. 4).

- 石塚二葉·坂田正三. 2017. “第2次チョン指導部發足.” 『アジア動向年報 2017』. 千葉: アジア經濟研究所.
- 이한우. 2002.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21세기 발전 방향: 제9차 당대회 결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5(4): 123-145.
- _____. 2011.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1(3): 105-138.
- _____. 2021. “베트남 제13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개혁의 지속.” 『웹진 서강동연』 6: 15-27.
- 이한우·채수홍. 2017.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7(1): 163-191.
- 정재호. 2021. “‘지한파’로 채워진 베트남 지도부, 탄탄한 양국관계 예고.” 『한국일보』 2월 1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10470003670?did=NA>(검색일: 2021. 2. 12).
- BBC tiếng Việt. 2016/01/26. “Bầu xong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khóa XII.” https://www.bbc.com/vietnamese/vietnam/2016/01/160126_central_committee_list(검색일: 2016. 8. 9).
- _____. 2021/02/02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ở đâu trên thế giới?” <https://www.bbc.com/vietnamese/55903028>(검색일: 2021. 2. 3).
- _____. 2021/02/03. “Việt Nam: Có bao nhiêu ứng cử viên để Đảng bầu ra 18 ủy viên Bộ Chính trị?” <https://www.bbc.com/vietnamese/vietnam-55924493>(검색일: 2021. 2. 3).
- Boudreau, John & K. Oanh Ha. 2015. “Vietnam’s Divide: Slow Healing, Fewer Prospects for Children of U,S. Allies.” *Bloomberg*. Dec. 24, 2015.
- Brown, David. 2021. “Vietnam Party Congress: Better Being Red

than Right.” *Asia Sentinel*. February 2.

<https://www.asiasentinel.com/p/vietnam-party-congress-better-being>

(검색일: 2021. 2. 4)

Communist Party of Vietnam(CPV). 1987.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DCSVN). 2011. *Văn kiện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DCSVN. 2016. *Văn kiện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I*.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_____. 2020a. “Dự thảo báo cáo chính trị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XII tại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II của Đảng.”

_____. 2020b. “Dự thảo Báo cáo đánh giá kết quả thực hiện nhiệm vụ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5 năm 2016-2020 và phương hướng, nhiệm vụ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5 năm 2021-2025.”

_____. 2020c. “Dự thảo báo cáo tổng kết công tác xây dựng Đảng và thi hành Điều lệ Đảng nhiệm kỳ Đại hội XII.”

_____. 2020d. “Dự thảo báo cáo tổng kết thực hiện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10 năm 2011-2020, xây dự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10 năm 2021-2030.”

_____. 2021. “Phát biểu của đồng chí Võ Văn Thương tại phiên bế mạc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II của Đảng.” <https://daihoi13.dangcongsan.vn/tin-moi/phat-bieu-cua-dong-chi-vo-van-thuong-tai-phi-ien-be-mac-dai-hoi-dai-bieu-toan-quo-oc-lan-t-hu-xiii-cua-dang-4466>(검색일: 2021. 2. 1).

Hayton, Bill. 2020. *Vietnam: Rising Dragon*. New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iebert, Murray. 1993. *Vietnam Notebook*. Hong 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 <http://www.dangcongsan.vn/tu-lieu-van-kien/ban-chap-hanh-trung-uong/bo-chinh-tri.html>(검색일: 2016. 7. 30).
- Lê Hiệp & Anh Vũ. 2021. “Khởi quân đội có số ủy viên Ban Chấp hành T.Ư Đảng khóa XIII đông nhất.” *Thanh Nien*. 31 tháng 1. <https://thanhnien.vn/thoi-su/dai-hoi-xiii/khoi-quan-doi-co-so-uy-vien-ban-chap-hanh-tu-dang-khoa-xiii-dong-nhat-1336511.html>.
- Thanh Niên. 2016/01/29. “Chân dung 19 Ủy viên Bộ Chính trị khóa XII.” <http://thanhnien.vn/thoi-su/chan-dung-19-uy-vien-bo-chinh-tri-kho-a-xii-662375.html>(검색일: 2016. 1. 30).
- Thayer, Carlyle A. 2011. “Leadership Change in Vietnam.” *ASEAN Monthly Commentary*. Feb.
- Tuổi Trẻ. 2016/01/26. “Công bố danh sách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khóa XII.”(검색일: 2016. 1. 27).
- Vietnamnet. 2018/07/26. “Đoàn thuyền thúng” và nghịch lý mang tên doanh nghiệp tư nhân.” <https://vietnamnet.vn/vn/tuanvietnam/tieudiem/nhung-nglich-ly-mang-ten-doanh-nghiep-tu-nhan-466251.html>(검색일: 2018. 7. 30).
- _____. 2021/02/13. “It’s Time for Private Economy to Develop.” <https://vietnamnet.vn/en/business/it-s-time-for-private-economy-to-develop-712156.html>(검색일: 2021. 2. 15).
- VnExpress. 2011/01/18. “Danh sách Ủy viên Chính thức.”(검색일: 2011. 1. 18).
- Vuving, Alexander L. 2017. “The 2016 Leadership Change in Vietnam and its Long-term Implications.” *Southeast Asian Affairs 2017*.

Abstract

Continuing Economic Reform amid Political Conservatism in Vietnam:

An Analysis of the 12th and 13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LEE Han Woo
Sogang University

Vietnam held the 13th Communist Party Congress in late January and early February 2021. Following the 12th Party Congress, the 13th Party Congress gave the message that Vietnam will continue economic reform under the condition that Vietnam adheres to the socialist system. Vietnam seeks to continue its economic reform amid political conservatism, where the Communist Party strengthens its dominance over the state and society. Economically, Vietnam seeks to develop each sector while maintaining an economic system in which several ownership sectors coexist. The goal of the state-owned economic sector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officially continues to be maintained. At the 13th Congress,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economic sector in particular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was recognized. The private economic sector is being encouraged to cooperate with the state economic sector. Vietnam has continued to promot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mote linkage

between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domestic ones, and suggests a policy direction to increase the autonomy of domestic industry.

The Communist Party seeks to reinforce its dominance by building the party that emphasizes socialism and revolutionary morality in terms of ideology, and to restore public support by eradicating corruption. Although democracy is limited in Vietnam's political system as a whole, it can be evaluated that democratization within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realized to some extent. Representatives who attended the 13th Congress elected the members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Politburo by voting. The percentage of consecutive members of the 13th Central Committee was much higher than before. Among the members of the Politburo, the members who are working at the central institutions of the Communist Party occupied the majority, strengthening the Party's dominance. Overall, it can be evaluated that Vietnam has strengthened ideological conservatism and the Communist Party's dominance through the 12th and 13th Congress. Vietnam is continuing economic reform amid political conservatism while the Communist Party strengthens its dominance over the state and society.

Keywords: Vietnam, Communist Party Congress, Socialism, Conservatism, Reform

